

# 트라버즐 시나리오



작성자: 한만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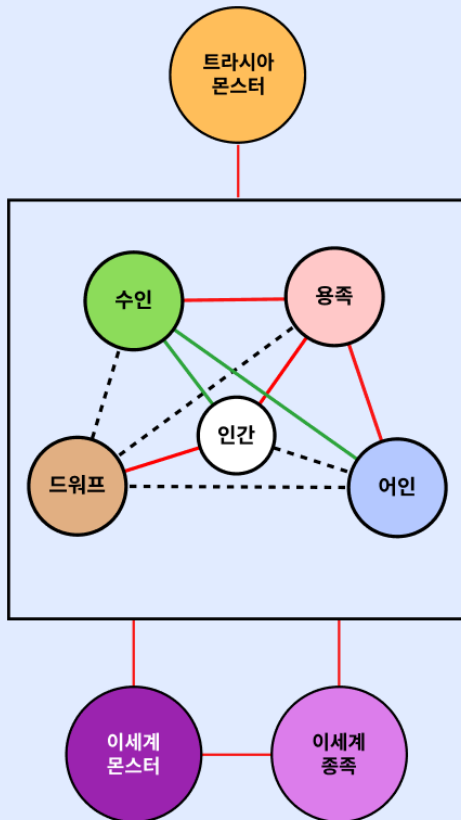
# 목차

<u>갈등 구조</u>	.....3
<u>#Scene 0 - 프롤로그: 절망의 날</u>	.....4
<u>#Scene 1 - 느긋한 시작</u>	.....9
<u>#Scene 2 - 지각생</u>	.....10
<u>#Scene 3 - 외톨이</u>	.....12
<u>#Scene 4 - 본 실력</u>	.....13
<u>#Scene 5 - 차원의 문</u>	.....15
<u>#Scene 6 - 꿈이었으면</u>	.....16
<u>#Scene 7 - 그리운 외침</u>	.....18
<u>#Scene 8 - 복수심</u>	.....19
<u>#Scene 9 - 단호한 시작</u>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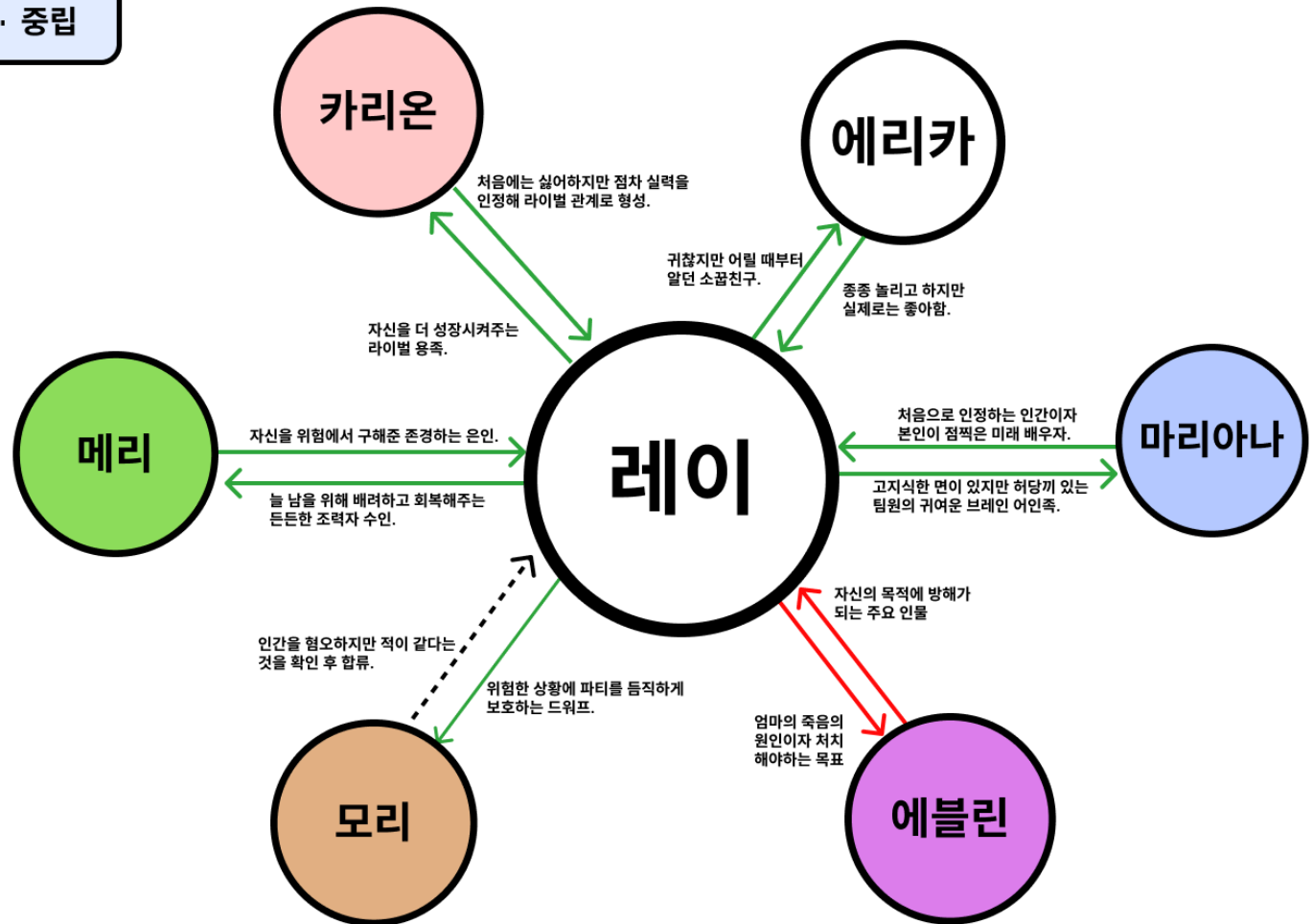
## 트라버즐 갈등 구조

— 우호  
— 적대  
.... 중립

### 팩션 구조



## 주인공 중심 관계 구조



## #Prologue: 절망의 날

장소: 트라시아 운명의 호수

???

‘그이는 도대체 무엇을 본걸까?’

(화면 체인지)

피 비린내와 썩은 시체 냄새가 전장을 감싸고 있다.

카이

“거의 다 왔어!”

드레이크

“박살을 내버리자고!”

절대로 쉬이지 못할 것만 같던 5종족들이 하나가 되어 차원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차원의 문. 어느 날 트라시아 대륙 중앙에 있는 운명의 호수에 나타난 의문의 나선형 모양의 포탈. 그 문을 통해 이세계 몬스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 트라시아는 큰 혼돈이 도래한다. 여러명이 이 문 뒤의 진실을 알고자, 또 트라시아의 평화를 위해 도전해봤지만, 대량으로 나오는 몬스터의 공세로 인해 돌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희생을 막고자 트라시아의 모든 종족들은 서로의 갈등을 뒤로 두고, 동맹을 결성한다. 그렇게 각 종족을 대표하는 용사들로 형성된 5인의 챔피언들을 선두로 모든 종족들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한다.

성격이 급한 용족 챔피언 드레이크가 선방에 나선다. 드레이크는 하늘로 날아올라 숨을 깊게 마시더니 화염방사로 몬스터들을 태워버리고 경로를 확보한다.

드레이크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ㅋㅋ”

시라

“아아... 진짜 너무 싫어. 저런 저급한 말투는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건지...”

드레이크

“지는 못하니까 괜히 시비거는거 보소.”

시라

“하아...”

티격태격하는 순간, 더 많은 몬스터들이 달려오기 시작했고, 어인족 챔피언 시라가 얼음 기동을 생성하여 몬스터들을 얼려버린다. 그녀의 기술은 우아하고 아름다워 마치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시라는 드레이코를 하찮은 듯이 쳐다보며 콧방귀를 날린다.

시라  
“아까 뭐라고?”

드레이코  
“첻.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구만.”

카이  
“재네는 이 상황에도 싸우네”

네리스  
“둘이 너무 사이가 좋네요~”

쉴틈 새도 없이 계속 몬스터가 나타난다. 이번 몬스터들은 방패와 갑옷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상태여서 쉽게 뚫릴 거 같지 않아 보인다.

드레이코  
“이걸 보시지!”

드레이코는 날아올라 매의 눈으로 방패 몬스터들을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가슴을 꿰뚫는다.

드레이코  
“키야, 시원하다~”

네리스  
“드레이코님, 조심하세요!”

자아도취를 하던 드레이코 뒤에 거대한 몬스터 한마리가 나타나고. 광범위한 고약한 독가스를 뿜어댄다. 방심하던 5인은 독가스를 들이마시고 맹독 상태에 빠진다. 비행하던 드레이코는 결국 독을 들이마시고 풀썩 땅으로 떨어진다.

네리스  
‘이대로 가면 끝이야!’

수인족 챔피언 네리스는 얼마 남지 않은 남은 힘을 모아 자연의 힘을 쓴다. 파티원 주변에 초록색 빛이 아우르며 파티원의 독 상태는 치유되고 모두의 체력을 회복시킨다. 하지만 회복이 끝나자마자, 몬스터는 거대한 팔을 들어올린다.

엔데  
“다들 내 뒤로!”

드워프족 챔피언 엔데가 기합을 주더니 땅에서 커다란 방패의 형상의 방어막이 만들어진다. 몬스터가 힘껏 내려쳤지만, 땅의 방패로 인해 파티원들의 손끝하나 대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나가고 몬스터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카이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간 챔피언 카이는 눈을 감고 기를 모으기 시작한다. 눈을 뜨자, 카이의 눈은 빨간색으로 변해있었고,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 거대한 몬스터를 난무한다. 몬스터는 여러 마디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른 종족들이 봐도 경이롭다고 느껴질 정도다.

드레이코  
“멋있는 건 재가 다 하는구먼.”

시라  
“누구처럼 교양 없어 보이지도 않고.”

드레이코  
“뭐라고?”

네리스  
“자자. 흥분 가라앉히 시구요. 드디어 왔어요.”

어느 순간 문 앞에 다다른 5인의 영웅들. 이세계의 병력이 다 떨어진 것일까?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몬스터 공세도 어느새 잠잠해졌다. 모든 원흉이 시작된 이 곳.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이 문 너머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드레이코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지.”

시라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는지...”

네리스  
“그 희생으로 인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엔데  
“흠...”

뒤를 돌아보니, 각 5종족의 군대는 모두 전멸. 5인의 챔피언들이 시체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카이는 계속 문만 바라만 볼 뿐이다.

드레이코  
“인간. 무슨 일 있나?”

문 앞을 뚫히 바라보던 카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몸을 떨기 시작한다. 뭔가 고민이 있는듯 카이의 두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카이  
“...”

네리스  
“카이님?”

카이는 천천히 네리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네리스는 피처럼 붉고, 선명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불길함을 느낀다.

카이  
“... 미안해.”

카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쥐고 같은 편이었던 나머지 챔피언들을 향해 크게 휘두른다. 큰 검기가 4명의 챔피언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리고, 엄청난 치명상을 맞은 챔피언들은 쓰러진다. 그렇게 드레이코, 시라, 그리고 네리스는 말을 꺼내기 전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다. 강한 내구성 덕이었을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엔데가 카이를 향해 손을 뻗는다.

엔데  
“카이, 도대체 왜...”

카이는 아무 말 없이 차원의 문으로 들어간다. 카이가 들어간 후, 차원의 문은 크게 굉음을 내더니 사라져버린다. 엔데는 결국 동료들을 모두 잃고, 의문만 남은채 기절한다.

(화면 체인지)

카이, 최초로 차원의 문을 들어간 인간. 그가 문으로 넘어간 이후 각지각국에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생기 시작했다. 추후 차원의 문 습격에 실패한 이 날을 ‘절망의 날’이라 칭하게 된다. 그렇게 트라시아는 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이는 도대체 무엇을 본걸까?

## #Scene 1: 느긋한 시작

장소: 50년 후 리틀풋 마을, 레이의 집

엄마: “레이 일어나! 지금 몇시야!”

엄마의 외침에 레이는 깨어났다. 레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부엌으로 향한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레이는 차려진 아침 식탁에 앉아 빵을 먹기 시작한다.

이 곳은 인간 영역의 리틀풋 마을. 인간 영역 중에서도 제일 평화롭고 차원의 문의 영향을 덜 받은 시골이다. 마을에 사는 사람은 어렴풋 100명 정도 밖에 안되서 서로 모르는 사이가 없을 정도다. ‘절망의 날’ 이후 인구의 수는 급격히 줄어 들었고, 남은 거라곤 작은 마을 몇개랑 인간 영역의 대도시인 브리타니아 왕국. 또한, 종족 동맹은 완전히 파기되어 종족 간의 갈등은 어느 때보다 더 악화 되어 서로 본인들의 영역만 지키는 상황이 되버린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절망의 날’ 차원의 문 너머의 종족들도 타격을 많이 입었는지, 이전 만큼 공격을 퍼붓지는 않지만, 가끔씩 공세가 나오는 상황을 대비해 늘 경계태세를 가춘다.

엄마: “애는 참. 그렇게 느리게 먹어서 또 훈련 지각할 셈이니?”

레이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시간을 확인해본다. 훈련 시간 까지 5분. 정신이 번쩍 든 레이는 급하게 아침을 흡입하고 급하게 옷을 갈아 입은 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선다.

엄마: “에휴... 재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런지.”



## #Scene 2: 지각생

장소: 훈련장

레이는 훈련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10분이나 늦은 상태였다. 머리 끝까지 화난 단장님은 레이를 훈련장 10바퀴를 돌게 하는 벌을 내린다.

훈련장. 원래는 학교라는 명칭을 썼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인간 왕국에 학생들을 전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시 개조된 곳이다. 다른 종족들과 달리 인간들은 마법이나 내구성, 혹은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대부분 무난한 전사의 길을 택한다. 레이도 그저 이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나중에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지만, 아직 레이는 7바퀴나 남아있다.

에리카: “너 또 지각 했구나?”

소꿉친구 에리카가 다가와서 시비를 건다.

에리카: “그러게 평소 좀 잘하지 그랬어? ㄸㄸ”

어릴 때 부터 알던 소꿉친구 에리카. 평소에도 모범적이며 검술에 재능이 탁월한 여자로, 반 전체에 동경의 대상이다. 힘도 어찌나 센지, 에리카랑 팔씨름에서 이긴 훈련생은 아직도 없을 정도다. 게다가 얼굴도 이쁘기까지. 참 재수없는 아이다. 레이한테 에리카는 그저 짜증나는 친구일 뿐. 지금도 달리는 레이 앞에서 빗자루로 날아다니며 알뜰게 놀리는 중이다.

에리카: “어? 휴식시간 끝났네. 그럼 나중에 보자 ㄸㄸ”

얄미운 표정으로 에리카는 다시 훈련을 하러 간다. 저런 인간처럼 절대 되지 말아야하지 하고 다짐하며 레이는 더 열심히 뛴다. 하지만 1바퀴 돌고 결국 탈진해 쓰러지고 만다.

## #Scene 3: 외톨이

장소: 훈련장 실내 집합소

전사 단장: “오늘은 파티로 숲속의 몬스터를 사냥해 볼 시간이다.”

전사 단장이 큰소리로 모든 훈련단원들에게 임무를 알려준다.

전사 단장: “우리 마을은 지금 당정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차원의 문의 영향으로 우리 세계의 몬스터들도 더 날뛰게 된거는 알고 있지?”

‘절망의 날’ 이후, 50년 동안 새로 생긴 차원의 문은 무려 11곳. 다행이도 리틀풋 근처에는 한번도 나온적이 없기에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에 대비를 해야한다.

전사 단장: “각 2인 1조를 파티를 짜서 슬라임 조각 3개를 가져올수 있도록! 그럼 행운을 빈다.”

모든 훈련생들은 서로 파티를 짜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레이 옆에는 오지 않는다. 역시 성적이 좋지 않은 레이한테는 그저 발목만 잡힐 뿐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에리카는 인기가 많아서 많은 훈련생들이 그녀와 파티가 될려고 애쓴다.

레이: ‘결국 오늘도 혼자인가?’

평소에도 혼자였던 탓에 별 감흥 없이 레이는 오늘도 혼자 숲으로 향한다.

## #Scene 4: 본 실력

장소: 리틀풋 숲속

숲속에서 슬라임을 찾는 레이. 차원의 문이 생기기 전에도 트라시아에는 몬스터들이 존재했었다. 어떤 종류는 우호적이지만 대다수가 적대적이기에 레이는 경계태세를 놓지 않는다.

(부스럭)

뭔가 덩불에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가는 레이. 몬스터인줄 알고 검을 조심히 꺼내서 단 한번에 죽일 기세를 취한다. 덩불을 벨려고 하는 순간!

???: “까아아아악!”

뭔가가 놀라서 뒤로 자빠진다. 처음 보는 생물이었다.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머리 위에 귀가 쫘긋 나있고, 꼬리까지 달린 생물이었다.

???: “절 죽이지 말아주세요! 해하려 온게 아니에요!”

레이는 경계를 놓지 않았지만 일단 위험해 보이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둔해 보이는 수인이었다. 레이는 검을 다시 집어넣고 수인을 일으키려고 손을 뻗는다.

???: “고... 고마워요. 사실... 까아악!”

레이는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슬라임 3마리가 레이를 공격한다. 3마리에게 공격당한 레이는 바로 다시 일어나 수인 앞을 지킨다.

슬라임은 이전에 순한 몬스터로 딱히 인명 피해를 주지 않았던 몬스터지만 지금은 차원의 문의 영향으로 인해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슬라임은 레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검을 뽑은 레이는 순식간에 슬라임 3마리를 처치해버린다.

???: “우와... 어...엄청 강하시네요!”

사실 레이는 훈련장이 싫고 귀찮아할 뿐이지, 실력은 출중한 편이었다. 다만 굳이 내세우고 싶지 않은 성격이라 제 실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을 뿐이다. 이 부분은 전사 단장도 인정하고 있지만, 레이의 게으른 성격 때문에 높이 평가를 안하고 있었다.

???: “어? 팔에 상처가...”

아까 급습을 당할때 나온 상처였나보다.

**???:** “잠시만 계세요.”

수인은 눈을 감고 레이의 상처난 팔에 주문을 걸더니 주변에 초록색 빛이 아우르며 상처가 말끔히 치유된다.

레이: “대단한걸?”

**???:** “아아.... 별거 아니예요.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수인이 얼굴이 붉힌다. 뭔가 이상해지기 전에 빨리 자리를 뜰려고 하는 레이.

**???:** “저기 혹시 이 주변에 이상한 낌새를 보지 못했나요?”

레이: “이상한 낌새?”

메리: “아 내 정신좀 봐.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지... 저는 메리라고 해요.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숲에서 이상한 어둠의 느낌을 감지해서 저를 경찰로 보낸거거든요. 수인들은 풀과 교류할 수 있어서... 사실 다들 별거 아닐꺼라 생각해서 제일 한가한 저를 보낸거긴 한데....”

레이: ‘어둠의 느낌? 아까 그 슬라임이었나?’

고민하던 도중 갑자기 땅이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한다.

## #Scene 5: 차원의 문

장소: 리틀풋 숲속

메리와 레이 눈 앞에 차원의 문이 생겼다. 몇년간 리틀풋 마을 부근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차원의 문이 지금 둘 앞에 생긴 것이었다. 레이는 겁싸게 어쩔 줄 몰라하는 메리를 데리고 근처 덩불에 몸을 숨긴다. 지금까지 봐왔던 몬스터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기괴하고 기이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문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적어도 50마리 이상의 수많은 이세계의 몬스터들이 문에서 나온다. 지금 들키거나 공격하면 100% 죽는다는 생각이 레이를 스쳐 지나간다. 숨죽여서 지켜보던 메리는 심하게 떨기 시작하고, 숨소리가 강해지자 레이는 메리의 입을 막고 최대한 조용히 진정시킨다.

이세계 몬스터: “캬아아아아오오오!”

괴성을 지르며 이세계 몬스터들은 한 방향으로 재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리틀풋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몬스터들이 지나가고 레이는 메리의 입에 손을 땀다.

메리: “고... 고마워요. 일단 저는 빨리 다른 수인들한테 연락을 할게요!”

메리는 나무를 타고 재빠르게 사라진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함을 느낀 레이는 서둘러 마을로 달린다.

## #Scene 6: 꿈이었으면

장소: 리틀풋 마을

마을에 도착한 메리와 레이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만다. 집들을 불타고 있고, 피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몇몇의 훈련생들과 단장들은 맞서고 있었지만, 쪽수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그때 레이의 눈길에 들어온 한 여자.

에리카: “까아악!”

이세계 몬스터 한마리가 방심한 에리카를 공격 하려고 하는데, 레이가 재빠르게 쏘어버린다.

에리카: “레이...”

눈물을 글썽이는 에리카를 일으키며 지금은 울때가 아니라고 달래고 다시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에리카의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몬스터들을 해치워 나간다. 지나가면서 시체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민간인도 있고, 훈련병들도 있는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치워 나가다가 우연히 전 단장들과 합류하게 된다.

전사 단장: “레이!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군.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말하마. 몬스터가 더 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해 단장들은 선방대에 설테니 너네들은 민간인들을 보호 및 대피하도록 해라!”

단장의 말에 따라 민간인들을 보호시설로 옮기는 도중, 레이는 누군가 없는 것을 깨달는다.

레이: ‘엄마!’

레이는 재빠르게 집으로 향하지만, 집은 이미 무너져있었고, 5마리의 몬스터들이 한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다. 그 시체를 본 레이는 어안이 빙빙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린다. 그 소리에 몬스터들이 레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달려들지만 녀를 잃은 레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레이: ‘엄마 없이는...’

레이는 최후를 각오하고 눈을 감는다. 유일한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으면 이제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레이.

**???:** “아직은 아니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들린다. 레이의 영혼 빠진 눈에는 빨간색 빛이 나면서 온 몸에 엄청난 빛이 발생한다. 각성한 레이는 이전과 달리 뭔가 더 무섭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기 시작한다. 이제는 절망감보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레이를 지켜 본 몬스터들은 주춤하지만 다시 공격을 시도하는데, 레이가 인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몬스터들을 무아지경으로 쓸어버린다. 그의 난무하는 그 모습은 마치 전설의 영웅 카이와 일치해 보일정도. 몬스터들은 여러마디로 분해되어 소멸한다. 레이의 눈에는 빨간색 눈물이 흘러 내리고, 레이는 기절한다.

## #Scene 7: 그리운 외침

장소: 애버그로브

엄마: “레이 일어나! 지금 몇시야!”

엄마의 외침에 레이는 깨어났다. 하지만 본인 침대가 아닌 낯선 곳에서 일어나게 된 걸 깨달았다. 근처에 잔잔한 폭포가 흐르는 소리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이 곳. 수인족의 마을 애버그로브였다.

레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머리를 쥐어잡는다. 그의 옆에는 에리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아무래도 정신을 잃은 뒤 내내 간호 했나보다. 에리카는 이네 눈을 뜨고 앞에 깨어난 레이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

에리카: “레이!”

에리카가 펄펄 울면서 레이를 꼭 안는다.

에리카: “이 바보! 죽은 줄 알았잖아!”

우는 에리카를 쳐다보며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아직도 꿈이라고 믿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이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오르자니 레이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레이는 떨리는 손으로 에리카를 안고 숨죽여 울기 시작한다.



## #Scene 8: 복수심

장소: 에버그로브

메리: “전사님, 깨어나셨군요!”

진정한 레이와 에리카 앞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온다. 그 날 처음으로 봤던 수인 메리였다.

에리카: “서로 아는 사이야?”

에리카가 조금 경계심 가진 말투로 물어본다.

메리: “그 날 전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왔었어야 하는데...”

메리와 헤어진 이후, 본인은 보고를 하러 수인족들에게 달려가 지원을 요청했나보다. 레이는 다시 주변을 제대로 보니, 리틀풋 마을에 남은 생존자들과 그들을 돕는 다양한 수인족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

레이는 에리카와 메리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된다. 그 날 참담한 운명을 맞이할 뻔 했던 순간, 수인족들이 나타나 인간들을 도와줬다고 한다. 남은 몬스터들은 후퇴를 하고 리틀풋 사람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희생자는 어렵게 70명. 그 중에 단장님도 포함이 되어있었다.

에리카: “넌 그 날 기절된 채로 발견됐고, 이를 만에 다시 깨어난 셈이야.”

메리: “지금 남은 생존자들을 데리고 저희 마을로 데려왔고요.”

리틀풋 마을은 완전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하루만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마을의 평화가 깨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희생된 불쌍한 엄마... 레이는 이불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숙인다. 레이는 자기 가슴에 불타오르는 한 감정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복수심. 차원의 문 너머로 가서 그 이세계의 종족들을 몰살하고 마리라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정도였다. 원가 확신에 찬 레이는 급하게 침대에서 나와 재정비를 하기 시작한다.

에리카: “레이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은 휴식을 취할때야.”

하지만 에리카는 레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면서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준비를 마친 레이는 메리한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에리카한테 건강히 있으라고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 #Scene 9: 단호한 시작

장소: 애버그로브 근처 숲

무턱대고 뛰어 나왔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길을 잃어버린 레이. 설상가상으로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오르려고 했던 나무는 엔트 몬스터. 생각보다 벅찬 상태였다. 안 그래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 힘까지 많이 소진한 상황. 그 순간 뒤에서 검을 뽑는 소리가 들려온다.

에리카: “야 이 바보야! 혼자 무턱대고 가면 어떡해!”

메리: “헉...헉...”

에리카랑 메리가 험레벌떡 쫓아왔다. 아직 그래도 완전히 혼자서 아닌가 보다하는 생각에 위안을 받고 3명은 엄청난 협동 공격으로 엔트를 쓰러트린다.

에리카: “너만 모든 걸 잃은건 아니거든? 갈꺼면 같이 가야지!”

메리: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야죠.”

평생 혼자서 수행하던 레이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전우애를 느껴보며 사과한다.

에리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려고?”

레이: “브리타니아 왕국...”

인간의 대도시 브리타니아 왕국. 거기로 가면 뭔가 더 알아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레이는 발걸음을 돌린다. 한치라도 빨리 적의 정보를 얻고 몰살하고 싶은 레이의 눈빛에 에리카는 이내 단념한다.

에리카: “에휴... 내가 뭐라 해도 결국 지 끌리는 대로 하겠지. 가자, 이 누님이 지켜줄테니.”

메리: “저도 같이 갈게요!”

에리카: “넌 또 왜?”

메리: “그... 전사님도 치료가 필요할테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저도 다른 세계를 보고 싶었어요. 헤헤”

순수한 메리와 말괄량이 에리카가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며 레이는 뭔가 안도감을 느끼고 입에 미소를 띤다.

레이: “가자.”

그렇게 3명은 브리타이나 왕국을 향해 모험을 나선다. 하지만 레이에게는 복수심 말고도 한가지 더 거슬리는 의문점이 남아있었다.

레이: ‘그때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풀리지 않은 의문과 복수심을 다짐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레이와 동료들은 저 너머로 보이는 브리타니아 왕국을 향해 나선다.